

## NH證 "현대위아, 고객 다변화 노력 긍정적...신규 사업 지켜보아야"

등록 2020.01.30 08:25:28

현대위아 4분기 실적 Review (K-IFRS 연결)

(단위: 십억원, %)

	4Q18	1Q19	2Q19	3Q19	4Q19P					1Q20E
					발표치	y-y	q-q	당사 추정	컨센 서스	
매출액	2,160	1,849	1,892	1,775	1,798	-16.8	1.3	2,086	2,046	1,733
영업이익	4.9	14.6	29.9	37.3	20.2	315.2	-45.9	42.3	47.8	28.5
영업이익률	0.2	0.8	1.6	2.1	1.1			2.0	2.3	1.6
세전이익	-31.0	16.0	5.8	30.4	-2.8	적지	적전	21.6	38.3	22.5
(지배)순이익	-24.2	13.8	6.5	19.8	13.4	흑전	-32.1	18.0	30.3	17.7

주: IFRS 연결기준. 자료: 현대위아, FnGuide,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

[서울=뉴시스] 김동현 기자 = NH투자증권은 30일 현대위아(011210)에 대해 "현대차그룹 외 고객 다변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. 지난해 기저효과에 의한 실적 턴어라운드는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"면서 "향후 열관리 사업 등 신규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할 전망"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.

조수홍 NH투자증권 연구원은 "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조7983억원, 영업이익 2020억원을 기록했다.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.8%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5.2% 증가했다"고 밝혔다.

세부적으로 "자동차부문의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조6030억원, 43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.4%, 14% 감소했고 기계부문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.8% 감소한 1953억원, 영업적자 228억원을 기록했다"고 설명했다.

조 연구원은 차량부품 사업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중국사업 부진을 꼽았다.

조 연구원은 "연말 완성차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산동엔진법인 매출액은 약 2600억원(-25.4%)으로 감소했고 지분법 평가적자도 120억원을 기록했다"며 "기계사업은 실적 부진이 지속됐는데 지난해 하반기 분기 평균 신규수주 금액이 약 1400억원 수준에 그치는 등 올해도 매출성장 잠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"고 분석했다.

그러면서 "현대위아는 사업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. 현대차그룹 외 신규수주 확보 등으로 영업 리스크는 이전대비 축소됐지만 추가적인 추가상승을 위해서는 신규사업 가시화 또는 향후 이익전망 가시성이 좀더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"고 조언했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oj1001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